

# 현대적으로 풀이한 간화선 참구 공부법



**선가귀감**  
휴정 지음  
정우 강설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8천원

《선가귀감》은 글자 그대로 간화선을 참구하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 길을 알려 주는 책이다. 이 책은 서산대사 청허당 휴정 선사(1564년) 금강산 백화암에서 찬술했다. 수행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막막했던 당시에 서산대사는 50여 불교 경전과 어록서 수행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구절들을 뽑아 배치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주해와 송, 평을 달아 말 그대로 선가의 '귀감'이 되고자 했다. 정우 스님이 강설한 신간 《선가귀감》은 서산대사의 조선불교와 지금의 한국불교가 시대적 상황은 다를지라도 깨달음의 길을 방황하는 것은 매우 상통하고 있는 즙음, 수행자들에게 반가운 경책이 된다. 선

(禪)을 중심으로 간경, 염불, 주력 등 불교의 모든 수행법이 담겨 있고, 불교 수행의 근본인 계, 정, 해에 대해 설하고 있는 이 책은 다시 말하면 어느 한 가지 수행법만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책이다. 이것이 간행된 지 450여 년에 이르는 오늘날까지 수많은 해설서가 나온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정우 스님은 불교수행의 길잡이가 되어 온 불서의 고전 《선가귀감》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풀이하였다.

정우 스님(구미 금강사 주지)의 은사는 철우태주(1895~1979) 선사로 조선시대 전통적인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출가하여 평생 참선수행에 전념하며 법향을 전했다. 근세 한국불교의 중흥호인 경허 스님의 제자인 수월 스님과 혜월 스님에게 법을 인가받은 철우 스님은 불교 27세의 나이에 통영 용화사 조실로 추대될 만큼 수행력이 뛰어났다. 정우 스님은 철우태주 선사의 법을 이어, 은사 스님이 평생 지니고 공부하던 1600년경 목판본 《선가귀감》을 저본으로 해설했다.

서산대사 청허당 휴정선사는 임진왜란을 맞은 선조의 요청으로 전국 승려들을 결집

해 활약한 승병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서산대사는 승유역불 정책으로 불교의 암흑기였음에도 문정왕후와 허응당 보우선사의 노력으로 잠시 불교 부흥의 조짐이 보이던 때에 부활된 승과를 통해 등장한다. 이후 선교양종을 아우르는 판사직을 맡아 불교중흥의 노력을 하지만 시대적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다. 조선의 승유역불 정책으로 수많은 사

**휴정선사가 1564년 금강산서 찬술  
50여 정전과 어록서 가려 뽑아  
'활구' 들어 철저히 의심하길 당부**

찰들은 폐사되고 승려들의 지위는 천민으로 떨어졌다. 속세로 돌아가는 승려도 많았고, 유능한 지식인의 출가는 잦아들었다. 불교수행의 고전이자 최고의 깨달음 입문서 《선가귀감》은 이처럼 혼란한 시대 속에서 탄생하였다. 불교탄압의 시대적 상황에 길을 잃은 후학들을 위해 찬술한 《선가귀감》은 오늘날까지 시대를 뛰어넘는 깨달음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다. 이것은 수행에 몰두하며 불

교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던 서산대사가 제시한 새로운 불교의 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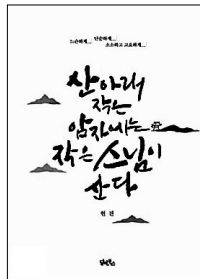
《선가귀감》은 언해본이 판각되었고, 여러 사찰에서 다양한 판본이 간행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또한 당시 일본에서도 여러 차례 간행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새로운 수행자들에게 의해 끊임없이 읽히고 있다.

서산대사는 이 책에서 참선수행과 교학의 중요성, 염불, 간경, 주력 수행의 필요성을 모두 아울러 짚어 주며 여러 근거(根機)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일상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친절하게 알려 주고 있다.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씀이다”(禪是佛心, 教是佛語)라는 구절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돈오와 점수의 논쟁과 더불어 선과 교의 우선순위에 대한 오래된 논쟁이 계속되어 왔으나, 이들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서로 다른 방법일 뿐, 본질은 같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산대사는 선으로 가는 길에서 간화선 수행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이때 사구(死句)가 아니라 필필 살아 숨 쉬는 활구(活句)를 들어 철저히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 “삶과 수행은 간절할때만이 목적하는 바에 다다를 수 있어”

**산 아래 작은 암자에는 작은 스님이 산다**

현진 지음 | 담앤박스 펴냄 | 1만4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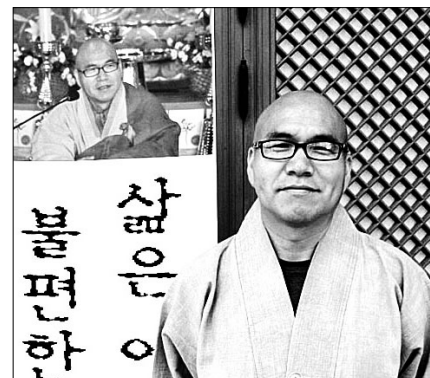
3년 전 마야사에 자리 잡은 현진 스님이 그 앞에 서면 한없이 작고 겸손해지는 꽃과 나무, 계절에 대해 이야기한다. 스님은 매 순간 우리는 ‘간절하게 살고 있는가’를 물으며 삶은 수행이 간절해질 때, 수행이 목적하는 바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하며 자연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선물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스님의 글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철마 다 파는 꽃과 나무를 따라 산길을 걷는 듯하다. 꽤 오랜 시간 때가 되면 복닥대던 도심 포교당을 휴원하던 스님은 청원 불모산 자락의 작은 암자로 옮겨와 반농반선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스님에게 삶의 매화나무, 여름의 느티나무, 가을의 비비추, 그리고 겨울의 설화는 삶이고 수행이고를 반추하게 해 주는 좋은 소재들이다. 그 속에서 스님은 “행복의 꼬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 “빠른 속도는 재미가 없다” 같은 너무나 자명한 진리들을 놓이는 글썽씨로 사람들에게 두런두런 이야기 하듯 꺼내놓는다.

이렇듯 현진 스님과 같은 수행자의 글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감동을 되돌아 보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일상의 목표와 속도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선명한 장면도 놓치고 살 때가 많다. 하지만 멈추고 돌아보면 장면 하나하나가 모두 명징해 보이는 법이다. 현진 스님이 순간순간을 수시로 돌아보며 반추하는 삶에서 우리에게 내놓은 이 책의 이야기는 바로 느슨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다.

“나뭇가지의 눈을 털어 주면서 가진 것이 적으면 근심도 줄어든다는 걸 배웠다. 가지가 적거나 잎을 지니지 않은 나무들은 눈의 무게를 피해 갔지만, 가지가 큰 나무들은 눈의 무게를 운몸으로 감당하고 있었다. 긴 가지가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지만, 겨울에는 그 길이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이다. 세상에는 이처럼 장점이 때로는 단점이 되는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때 주저 없는 단순한 삶이 세상의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주렁주렁 매달고 있으면, 그 욕심의 무게 때문에 결국은 몸이 상하거나 재산을 잃기 쉽다.” 이 대목은 스님이 폭설 앞에서 쓴 단상이다.

이런 단순한 삶의 추구는 결국 소박한 생활로 이어진다. 하지만 스님은 단순하고 소박하기만 하다면 그건 은거의 삶이지 불가의 삶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정작



스님이 묻고 있는 건 매 순간 우리는 ‘간절하게 살고 있는가’이다. 삶이 수행이 간절해질 때 그 삶이 추구하는바, 수행이 목적하는바에 다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스님은 이 책에서 삶의 간절함을 이렇게 말한다. “하루하루 얼마나 간절한 삶을 사는지를 묻고 있는 것 같았다. 간절함은 그 삶에 대한 소중함을 부여한다. 어찌 죽은 이에겐 오늘 하루가 그토록 간절하게 율했던 시간이었는지 모른다.”라고, 스님은 이런 간절함이 진지하고 철저한 삶의 배경이 된다고도 말한다. 물론 느슨하고, 단순하고, 소소하면서 간절하게 산다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스님이 밭을 옮기는 산길을 따라 꽃과 나무를 보다 보면 그 경계 속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연

**3년전 청원 마야사에 터잡아  
‘반농반선’의 삶서 느낀 단상 소개  
“자연은 우리에게 겸손함 선물”**

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선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현진 스님을 따라 다니는 수석어 중 하나는 ‘갈쟁이’다. 불교계 문인들의 산실인 월간 《해인》의 편집위원을 역임한 스님은 그동안 《두 번째 출가》(1997년)를 시작으로 《산하는 날》(2001년), 《산문, 치인리 십번지》(2003년), 《오늘이 전부다》(2009년), 《번뇌를 꺾어라》(2013년) 등 여덟 권의 책을 펴내 꾸준한 인기를 얻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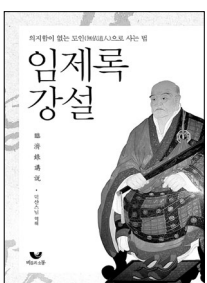
그동안 스님의 글쓰기 소재는 주로 ‘출가 수행’이나 ‘동서양의 경구’ 등이었다. 하지만 ‘청주의 조계사’라 불리는 관음사를 떠나 산 아래 작은 암자에 주석하는 스님은 이제 그 앞에 서면 한없이 작고 겸손해지는 꽃과 나무 그리고 계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선방에 앉아 화두를 듣거나 포교를 위해 저자거리로 나선 스님의 모습을 기대한 것이라면 실망할 수도 있지만 ‘한여름 마당의 풀과 씨름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말하는 스님의 글 속에는 또 다른 수행의 연륜이 숨어 있다. 그래서 스님의 글은 행간을 넘어갈 때마다 긴 여운을 남긴다. **김주일 기자**

## 핵심사상은 ‘무위진인’의 삶

**임제록 강설**

덕산 스님 역해 | 비움과소통 펴냄 | 1만5천원



‘선어록의 백미’로 일컫는 《임제록》은 당나라 때 임제의현(?~867)선사가 임제원에 주석하면서 가르칠 때의 독특한 가풍(가함 지르는 할·흠이 대표적)을 보여준다. 책의 주인공인 임제 스님은 우리나라 조계종의 선맥이기도 하며 일본 임제종의 연원이다. 조계종 중흥을 지낸 후 서용 스님은 평생 이 어록을 종지로 삼아 ‘참사람(無位真人)운동’을 펼쳤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가진 불성을 상징하는 ‘무위진인’이란 말은 위아래가 따로 없는 평등한 진리차원에서 마음을 쓰는 참사람으로,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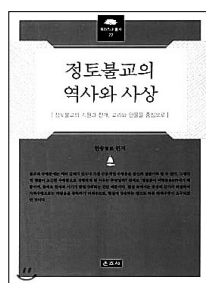
임제스님 역시 이 ‘하나의 마음자리’를 깨달아 여기에 마음을 두고 평생동안 중생을 교화하며 사셨다. 결국 우리도 임제 스님처럼 임심을 깨달아 무위진인으로 사는 것이 이 《임제록》을 공부하는 목적이다.

이 책의 저자인 덕산 스님(정주 혜은사 주지)이 《임제록》을 강의하게 된 목적은 선(禪)의 세계를 바로 알리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행복을 구가할 수 있도록 선을 대중화하기 위해서였다. 저자가 청주 시민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강의에 나선 것은 임제록 법문을 통해 불자들과 보리심을 나누고자 한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알던 불교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산산이 부서버리고 괴로움서 벗어나 대자유인으로서의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안내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주일 기자**

## 아미타불 실제 집중 고찰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현송 지음 | 운우사 펴냄 | 2만3천원



불교수행중 가장 근본은 참선과 염불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불교의 정토 수행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참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타력에 의지하는 염불은 대승불교 성립 이래 널리 성행했으며, 실제적인 수행문으로 두루 인정되었다.

그렇다면 왜 정토염불이 현실적으로 요긴한 수행문으로 성행하게 됐을까? 염불문이 이렇듯 요긴한 이유는 현실 속에서는 중생의 근기가 허약해 자력수행으로는 깨달음을 증득키 어려우므로, 현실에 상응하는 쉽고도 빠른 타력수행이 요구된 것이다.

이 책은 이렇게 중요한 불교수행종 하나인 정토염불에 대해 방대한 정토 경전과 논서, 그리고 역대 논자들이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정토사상의 발생과 역사적 전개과정, 정토경전의 성립과 그 내용분석, 대표적 정토로 인정되는 서방극락과 아미타불의 실상에 대해 집중 고찰한다. 또한 인도의 용수에서 비롯돼 중국서 꽃피운 정토에 대한 다양한 교상판석과 정토교학의 계보를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정토사상의 핵심이라 할 아미타불의 본원사상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그리고 염불의 종류와 방법, 정토사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불신론과 불토론 등에 대한 여러 논자들의 견해를 비교 분석했다. **김주일 기자**

## 윤회 주체는 지금의 나일까?

**윤회의 본질**

크리스토퍼 M. 베이저 지음 | 김우중 옮김 | 정신세계사 펴냄 | 1만5천원



현대의 연구자들이 조사한 전생의 기억은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자발적인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환기된 기억이다. 전자는 대개 어린아이가 말을 시작할 즈음에 예기치 않게 떠오르고, 후자는 소위 ‘의식을 확장시키는’ 정신요법들에 의해 촉발된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실제로도 서로 다른 종류의 증거를 제공해준다.

일부 연구자들은 전생퇴행의 수준을 넘어, 죽음과 환생 사이에 겪은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최면기법을 발달시켜왔다. 이들이 수집한 수백 건의 경험담은 티베트 불교경전인 《사자의 서》의 내용과 많이 비슷하다. 우리는 각자의 선택, 수준, 성향에 따라 사후세계에서 저마다 다른 경험을 하지만, 현대의 연구결과와 고대의 가르침을 통합하면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전생의 세부사항을 알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물론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음으로써 심리적 자유를 얻는 치유 효과는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에 사로잡히면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의 폭이 좁아지기 십상이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윤회에 관한 온갖 담론들을 한데 모아 합리적이고 체계화된 형태로 정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윤회론은 생과 생 사이의 상호작용, 즉 수직적 차원서 우주의 연결성을 말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허**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 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만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